

“역시 CBS !!” 신천지 OUT 캠페인 1년 한국 교회 찬사 이어져...

CBS는 지난해 7월 신천지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년간 신천지 대응활동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천지 OUT’ 캠페인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1 신천지 OUT 웹사이트 개설

신천지 OUT 웹사이트는 CBS의 신천지 고발 보도를 교계에 확산시키는 창구가 됐으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도 연결해 신천지에 대처하는 주요 허브 역할을 감당해왔다. 지금까지 1천5백여 교회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천지 OUT’ 사이트 배너를 설치하는 등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고발 보도와 프로그램 방영

CBS는 TV뉴스 ‘신천지 OUT’ 코너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모두 54차례 고발뉴스를

내보냈다. 또 이를 종합해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 ‘공격적 포교에 나선 신천지를 막아라’ 등의 영상물로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다큐멘터리와 특집좌담, 대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14회 제작, 방송해 신천지의 폐해를 알렸다.

3 전국적인 컨퍼런스 개최

CBS는 2013년 들어서 이단 대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지역 CBS가 이 일에 적극 나서 포항CBS(5월/포항장성교회), 대전CBS(6월/대전충무체육관), 영동CBS(6월/동해감리교회), 전남CBS(6월/순천제일교회, 7월/광양골약교회, 여수은파교회), 청주CBS(9월/신흥성결교회) 등 각 지역에서 신천지 OUT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또한 특강과 세미나 요청도 쇄도해 신천지 관련 강사는 물론 CBS 직원들이 직접 나서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4 신천지 고발광고 게재

1년간 일반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신천지 고발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51회, 지역 신문에 111회 게재하는 등 ‘신천지 OUT’ 광고를 162회 게재했다. 이는 신천지의 폐해를 기독교



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5 신천지 OUT 포스터 배포

CBS는 신천지 신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는 ‘신천지 OUT’ 포스터를 4만부 제작해 현재까지 전국 교회와 기관, 단체

에 2만 7천부 가량을 무료로 배포했다. 지금도 꾸준히 각 교회와 단체 등에서 ‘신천지 OUT’ 포스터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CBS는 빠짐없이 무료로 발송하고 있다.

6 신천지 관련 모든 소송에서 이겨

신천지는 CBS 관련 간부와 기자들을 고소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수차례 소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CBS의 ‘신천지 OUT’ 캠페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졌고 모든 소송에서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민사 소송 한건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 수호에 최선

CBS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단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특히 앞으로 CBS는 주요 교단과 연대해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송”

인사말

CBS 사장 이재천 장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에 헌신하는 CBS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설립된 CBS는 지난 59년간 선교기관이자 언론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진리를 온 누리에 선포해 왔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교회의 부흥을 견인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발전과 기독교 보급을 선도해 왔습니다. 사

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도와 수준 높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입이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 교회와 함께 진리 수호

이러한 CBS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때로는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 심각한 존립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 내고 한국 교회와 함께 복음의 기치를 더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 집단과 지난 3년여 간 전쟁을 치른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특별기획 함으로써 교회와 가정, 교인과 자녀들을 보호하

고 진리를 수호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신천지 집단의 항의와 협박,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당해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고비마다 하나님은 CBS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CBS가 이단 신천지 집단 척결을 위해 최선봉에 섰을 때 기도와 협력, 격려전화로 힘을 보태 주시고, ‘신천지 아웃 세미나’ 개최와 강사 초청, 홈페이지 배너 달기, 포스터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교회와 성도, 목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창사 60년, 새로운 미디어 선교시대 열어 선한 영향력 회복

CBS는 내년 창사 6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선교시대를 열어 나갈 뿐 아니라 민영방송 60년을 선도해온 방송사로서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걸맞는 비전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CBS에 주신 라디오와 TV, 인터넷 노컷뉴스, 무료 종합신문 노컷뉴스 등 종합미디어 매체는 물론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스마트 TV를 통해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BS에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격려와 협력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다

CBS, 창사 60주년 앞두고 전사적 혁신과 헌신 준비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1954년 방송선교의 첫 전파를 쏘아 올렸던 CBS가 2014년 창사 60주년을 맞이한다. 반세기 넘게 한국교회의 희망과 한국사회의 양심을 대변해온 CBS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미디어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사적 혁신 작업에 나선다.

CBS는 지난 6월 26일 <CBS 창사 60주년 TFT(위원장 이재천 사장)>를 구성하고 사업구조의 재정비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CBS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한국의 대표 선교방송, 대표 라디오방송의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60년을 한결같이 기도와 성원으로 지원해준 한국 성도와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60주년 기획과 헌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사 60주년 TFT에는 본사 기획조정실, 선교본부, 콘텐츠본부, 경영본부 등 전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기 '비전', '콘텐츠', '이벤트', '공헌'을 주제로 사업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BS는 CI, BI 등 각종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 디자인하는 'CBS 브랜드 통합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새로 개발되는 브랜드에는 CBS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 시청자와의 약속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미 임직원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초 '60주년 비전 선포식(가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CBS TV와 라디오는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온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도들과 시청자들에게 헌신하고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특집 기획을 제작, 방송할 계

획이다. 또한 평화,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도 검토 중이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헌신하기 위한 기획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교회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신천지OUT' 등 이단대처 캠페인, 농어촌 및 다문화 선교 지원 사업, 북한, 몽골, 아프리카 등에 복음을 전파,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이와 별도로 CBS는 지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60주년 사업기획 공모'를 진행해 70여개가 넘는 다양한 사업기획안을 접수, 심사 중이다.

또한 60주년을 계기로 CBS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전사적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창사 60주년 전 직원 설문



CBS는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계 등 외부인사, 재단이사회, 각종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60주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획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도 진행하는 등 전사적 참여 열기가 뜨겁다.

CBS는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계 등 외부인사, 재단

이사회, 각종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60주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획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의 스마트 미디어 방송 CBS

뉴미디어 모든 플랫폼 진출, 선교사역 확장

CBS TV가 지난 7월 SK Btv(IPTV)에 신규 런칭됨으로써 뉴미디어 모든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완료했다.

2002년 3월 TV를 개국한 CBS는 스카이라이프 위성TV로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지금까지 전국 80여 개 케이블

SO에 진출해 위성케이블 TV로 전국의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인 통신 3사의

CBS TV 채널 안내

지역 케이블 TV

skyLife ch.412

olleh ch.238

Btv ch.550

tvG ch.181

IPTV에도 적극적인 런칭 작업을 펼쳐, 지난해 KT 올레TV와 LG U+ TV에 런칭한 데 이어 이번에 SK Btv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고의 스마트 미디어 방송사'로서 뉴미디어를 선도해온 CBS는 TV와 라디오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TV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등 모든 스

마트 플랫폼과 미디어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최근 전북 고창에 새 라디오 중계소를 개설하고 경북 안동에서도 중계소 개설 허가를 취득한 CBS는 라디오와 TV 등 전통 매체를 통한 선교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뉴미

디어를 통해 새로운 젊은 사용자들을 향한 선교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1954년 라디오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기 시작한 CBS는 이제 라디오를 넘어 TV와 인터넷, 뉴미디어 등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Smart CBS가 당신과 함께
바른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CBS를 SMART APP으로 만나보세요.



신임 이사장 인터뷰

“한국교회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 모색”

CBS 제26대 재단이사장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제26대 CBS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CBS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기에 부족한 저에게 이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임 2년간 중점 추진 과제는?

내년은 CBS 창사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CBS는 한국교회의 방송인 만큼 한국교

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임기 내 특별한 일보다 60주년 행사, 새로운 리더십을 위한 준비, 그리고 사내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찾아 보려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한국 교회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내년 CBS 창사 60주년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종합 방송이 CBS입니다. 60년이란 숫자엔 기쁨과 환희, 슬픔과 아픔, 감동과 흥분, 감

사와 사랑과 같은 CBS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CBS와 한국교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교회와 사회를 향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창사 60주년을 넘어 CBS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은?

CB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내적으로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난 건강한 CBS, 건전한 CBS를 위해 모든 CBS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세상변화에 따른 언론의 변화를 CBS도 빨리 파악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기독교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난 60년간 건강한 사회를 위해 외

쳐온 CBS는 이제 성숙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당부하실 말씀은?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근대화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들은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채워지도록 정직과 진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CBS가 이 일에 앞장서고, CBS가 이 일을 밀어주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CBS 전직원 영성훈련

“영적 충만, 선교 열정 뜨거워져”



CBS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성훈련이 이번 하반기로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본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28명의 직원이 참가한 ‘하프타임 영성훈련’까지 만 3년 동안 모두 37회에 걸쳐 287명이 영성훈련에 다녀왔으며, 본사보다 한해 늦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지역본부의 경우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된 세 차례의 훈련을 모두 마치면 2년 반 만에 13회에 걸쳐 148명 전원이 영성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랑의 동산, 만나 BTD, 골든 TD 등 다양한 ‘TRES DIAS’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모새골, 예수원, 다일공동체, 그리고 하프타임 등 1박2일부터 4

박5일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전직원 영성훈련에는 출산휴가자와 해외특파원 등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가하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CBS 사목실 김영범 목사는 “이번 영성훈련은 창사 60년을 맞는 CBS 전직원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선교적 열정이 뜨거워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부터 다시 3년 주기의 새로운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100주년기념교회와 베다니교회, 하늘중앙교회 등 영성훈련을 위해 헌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CBS TV에는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신앙고백



새롭게 하소서

방송시간 : (본) 월~금 오전 10:00
(재) 월~금 오후 10:00

● 나눔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수호천사

방송시간 : (본) 월 오전 09:00
(재) 토 오후 10:00

● 크리스천의 신앙과 지식, 생각나눔



C스토리

방송시간 : (본) 화~수 오전 07:00
(재) 금~토 오후 04:00

● 교계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CBS 교회소식

Christian Information

방송시간 : (본) 월~토 오전 11:50
(재) 월~토 오후 04:30

● 성경공부의 종결자



성서학당

방송시간 : (본) 월~토 오전 11:00
(재) 월~토 오후 11:00

●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선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시간 : (본) 화~수 오후 04:00
(재) 금~토 오전 07:00

● 크리스천 삶의 나침반 역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방송시간 : (본) 목~토 오전 07:30
(재) 월~수 오후 07:20

● 찬양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합니다



힐링타임

HEALING TIME

방송시간 : (본) 월~토 오전 04:50
(재) 월~토 오후 01:50

CBS TV 채널 지역케이블 TV, skyLife 412, alleh G 238, B tv 550, U tv G 181

한국 교회의 희망, CBS가 찾아 나섭니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CBS <미션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땅 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사역을 증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 교회의 희망을 찾아 나서겠다”는 비전을 품고 지난 봄 방송을 시작한, CBS TV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이하 ‘미션 2013’)'가 상반기 결산특집방

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총 4부로 이루어졌던 이번 결산 방송에서는 ‘미션2013’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의 성원과 후원이 이어졌던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다’, ‘2013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Heal The World’,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등 CBS TV의 상반기 주요 방송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방송에서는 지난 4월 말 방송된 모리아교회의 변화된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당시 서울 용산구 동작동의 세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빼곡히 모여 예배를 드리던 모리아 교회는 방송 이후 300통 이상의 격려와 후원의 전화가 이어졌다. 라면과 쌀은 물론 든든한 후원 덕분에 좀 더 넓은 장소로 교회



를 이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까지 생겼다. MC 임동진 목사가 모리아교회를 직접 방문해 쪽방촌 성도들에게 열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감동적인 현장도 소개돼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아울러 대장암 수술 뒤에도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박철현 선교사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다. 박 선

교사는 6개의 마을을 개척해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나도 행복하다며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사역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특히 놀라운 건, 박철현 선교사의 방송이 나간 지 두달도 넘었던 녹화 당일, CBS 홈페이지를 통해 박 선교사의

사역을 접한 한 시청자가 거액의 선교헌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힌 것이다. ‘미션2013’의 제작진과 박철현 선교사 등 모든 출연진이 CBS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결산특집에서는 CBS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13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힐더월드’를 통해 방영된 우간다 나디기 어린이의 소식도 다시 만났고,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의 인도네시아 함춘환 선교사 편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도 방송됐다.

■ 미션 2013 방송일시
(본방) 매주 월~목 저녁 8시
(재방) 매주 화~금 아침 9시
■ 후원 홈페이지
미션2013.com



감동의 후원 스토리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말썽한 옷차림에 멋진 중절모까지 CBS를 방문하시는 김 장로님을 보면 항상 맑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 장로님은 2011년부터 CBS에 직접 오셔서 헌금해 주고 계신데요,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밖에서 ‘후원담당’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달려 나가면 손에 하얀 봉투 하나 쥐어 주시고는 사라지십니다. 사실 호칭도 절대 알려주지 않으셔서 그냥 저희끼리 ‘김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스터리 노신 사세요.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와 떨리는 손으로 오

실 때마다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란 헌금을 가져 오시면서도 ‘그저 더 많이, 더 자주 가져올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란 말씀만 남기시는 장로님을 보며, 저희 선교본부 직원들은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후원 해지도 은혜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막노동에는 봄이 없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의 겨울, 5월부터 10월까지의 여름이라고 하네요. 제주도에서 막일을 하신다고 본인을 소개하신 한 후원자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CBS TV를 보

며 은혜를 받아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도저히 형편상 후원을 지속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동안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도저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CBS에 정말 미안하다며 오히려 저희보다 더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럴 땐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까요. 그냥 수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후원 해지를 미안해 하시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아 일어나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원 해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CBS동역교회가 되어 주세요



130년 전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 이제, 그 복음의 빛을 전 세계로 갹아야 할 때입니다. CBS는 전 세계 700만 교포들에게 위성방송을 통해 CBS 콘텐츠를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TV, 모바일, 패드), 인터넷을 통해 다국어 버전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선교전략국가에 복음방송을 설립하여 세계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계 미디어선교를 위한 CBS의 비전에 동역교회로 참여해 주십시오.

☎ 참여안내 : 02-2650-7004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 '새롭게 하소서' 출연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이 지난 8월 12일, 13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의 단국대학교를 기도로 다시 세웠다는 간증을 전했다.

대학 총장시절 그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퇴학 시키지 않은 총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학생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해 갈 곳이 없던 박원순 학생(현 서울시장)을 단국대학교에 받아들인 일화도 있다. 서슬퍼런 유신 독재 시절임을 감안하면 대학총장이 정권에 맞서는 결정을 한 것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는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대학병원 건립만 마무리하면 스님이 되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사방이 가로막혀 병원 건립은 커녕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고난 속에서 제가 부처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

짚었다. 당시 정부의 특별감사 등으로 단국대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했고 막강한 권력과 싸울만한 힘이 없었던 그가 붙든 건 대대로 지켜오던 부처가 아닌 하나님이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고통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장 이사장은 고백한다.

서울캠퍼스를 천안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그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니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처럼 용인 죽전 캠퍼스 부지를 만났다. “하나님, 제게 땅을 주시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길러내는 배움의 터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가 이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살 수 있었다. 그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다.

러나 죽전캠퍼스를 짓는 동안 IMF가 터져 공사가 5~6년이나 중단됐고, 이자에 대한 압박이 숨통을 조여 왔다.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고 놀랍게도 자금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 마침내 2007년 단국대학교는 죽전캠퍼스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장충식 이사장은 이제 전도대장이 되었다. 주일이 되면 오래도록 섬겨온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옮겨 죽전캠퍼스 앞에 위치한 새에덴교회에서 그동안 전도한 수십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이웃 사랑을 구체적인

로 실천하고 있다.

팔순의 장충식 이사장의 마지막 꿈은 학교 안에 최고의 신학대학원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새로운 터전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음악으로 소통

CBS '2013 통(通)해야' 콘서트 개최

다문화 가족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CBS '2013 통(通)해야' 콘서트가 6월 26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통(通)해야' 콘서트는 지난 2004년부터 CBS가 우리 사회의 소통을 주제로 해마다 열고 있는 행사다. 2004년 첫 콘서트는 금강산에서 열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염원을 담았으며 이후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콘서트로 해마다 열고 있다.

10회 째를 맞은 올해는 다문화 가족과 시민 등 2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윈, 적우, 해바라기, 소찬휘 등 인기 가수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며 다문화 가족과 음악으로 하나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일본 영혼 회복의 중보자가 되고파

CBS한일연합선교회 '제2회 나가사키 평화대장정'

CBS한일연합선교회는 7월 2~5일 제2회 '나가사키 평화대장정'을 개최했다. '누가 니느웨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평화대장정은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진 70여 명의 청년과 성도들이 참가해 나가사키의 순교지를 직접 순례하고 기도하며 일본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참가기

대장정 참가자 김윤아 청년

히가시 소노기의 26 순교자 승선지 해변. 5백년 전, 스물여섯 명의 순교자를 기억하는 곳.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쪽 귀가 잘린 채 1,000km를 호송 당하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정거장이다. 그리고 호쿠바루 처형장. 임진왜란 그림에 나올



법한 모습의 일본인들이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낯설어, 동판 부조에 담긴 그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봤다.

시대와 민족과 역사가 다르지만, 그들과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또 내 마음이 기억하는 것은 유노하라 히로시 목사님의 무릎. CBS한일연합선교회 일본사무국장인 유노하라 히로시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은 일본의 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도움을

부탁했다.

나는 참 부답스러웠다. '그분이 지은 죄가 아닌 걸, 저로서 뭐가 해결 된다고...' 하지만 곧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죄와 용서'의 현장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내 앞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선 난 누구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여러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던 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무언가가 문득 떠올랐다. 그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였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일본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았다. 복음이 선포



순교지 호쿠바루 처형장 앞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CBS평화대장정 참가자들.

되어도 일본의 문화와 가치관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순간마다 나를 다시 세운 건 어머니의 기도였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였다. 믿음도, 회복도, 부흥도 모두 은혜로 채워지는 부분이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영혼 회복의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하지 않을까?

일본을 향한 내 마음은 아직도 불편하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 그것이 설령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원수를 위해서도 흘려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았듯이, 복음에 빛진 자가 되어 일본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돕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남CBS

CBS 전국 어린이 비전 캠프 개최

전남CBS가 주최하고 교사사명훈련원이 주관한 <CBS 전국 어린이비전캠프>가 지난 8월 순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다문화 가정과 농어촌교회 등을 포함한 전국 52개 교회,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

<CBS 전국어린이비전캠프>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믿음과 비전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창립10주년 '이단대책 컨퍼런스'

전남CBS 창립10주년 기념 <이단대책 컨퍼런스>가 지난 6~7월 순천, 광양, 여수지역



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6월27일 순천제일교회, 7월4일 광양골약교회, 7월15일 여수은파교회에서 총 3천

2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신천지로 인한 한국 교회의 피해사례와 이단 대처 방법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부산CBS

맞춤형 고급 보청기 무료지원

가나안보청기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식 맺어

부산CBS와 가나안보청기는 7월 19일 부산CBS 강당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교계의 은퇴(원로)목회자와 난청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첫 무료지원 사업으로 8월 20일, 21일 이틀 간 카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청각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목사 부부 20명과 성도 80명 등 100명에게 순차적으로 대당 시가 220만원의 맞춤형 고급 보청기 100대 2억2천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급했다.

그동안 보청기 무료지원은 저가형 보청기나 난청자의 청각 상태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부산CBS 보청기 지원 사업은 난청의 종류와 상태에 맞는 맞춤형 고급 보청기를 지급함으로써 보청기 사업에 대한 기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CBS와 가나안 보청기는 앞으로 정기적인 보청기 후원

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통한 교회 공헌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CBS 김창수 본부장은 "지역 교계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고,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CBS

이단대책 세미나 성황리 열려

대전CBS는 6월1일 대전 중무체육관에서 이단퇴치를 위한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CBS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기독교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와 신현욱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이 강사로 나서 이단의 현황과 문제점, 이단 대처 방안 등을 강연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대전, 충남지역 6백50여 교회 5천5백여 명의 성도들은 이단 퇴치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대전CBS 정복수 본부장은 "많은 성도를 미혹해 영혼을 파괴시키고 암세포와 같이 교회와 사회에 파고드는 신천지

에 맞서 CBS는 영적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해 건강한 교회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대구CBS

힐링 부흥회 개최

장경동 목사, 치유 메시지 전달

대구, 구미지역 복음화를 위한 '장경동 목사 초청 힐링 부흥회'가 6월3일, 4일 구미상모교회와 순복음대구교회에서 천5백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장경동牧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사역에 더욱 힘쓰자"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주CBS

창립52주년 감사예배

1961년 8월 1일 첫 전파를 쏘아올린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방송선교에 힘쓰고 있는 광주CBS가 창립52주년을 맞아 7월 26일 광주CBS공개홀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광주CBS 모든 직원과 광주CBS권사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광주지역 목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에서 하남은광교회 손종기 목사(광주CBS 운영이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기독교방송의 일꾼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광주CBS 직원들은 광주CBS가



지난 50여년 동안 복음전파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복음전파와 공정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CBS는 이날 광주교계와 광주CBS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온 광주지역 원로목사 부부 22명을 초청해 오찬을 대접하며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포항CBS

'신천지 OUT' 세미나

포항지역 이단사이비 대책세미나가 CBS의 후원으로 5월 12일 포항장성교회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권남계 전도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의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CBS '신천지 OUT'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예정통합 포항노회·포항남노회 이단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와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이단상담소 등 지역 교계와 포항CBS가 함께 손잡고 개최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크리스천 선출직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포항지역의 크리스천 선출직 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7



월 22일 영일대 호텔에서 개최됐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방영팔 목사)와 포항C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등 크리스천 선출직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교계인사와 지역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최다수상 기록 갱신

CBS 라디오, 12개 부문 중 7개 부문 수상으로 단독 질주

9월 3일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CBS 라디오는 작품상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상식에서 CBS 라디오는 12개 부문 중 7개 부문 수상 기록을 달성해 작품상 최다 수상 기록을 다시 썼다.

CBS는 우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 파문' 단독보도로 라디오 뉴스보도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보도로 청와대 대변인 경질 조치가 이뤄졌으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다.

CBS는 기획보도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청년고용 실태보고-대한민국 고용카스트'는 상반된 인생 경로를 사례로 고용카스트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나아가 고용카스트가 생겨난 원인을 짚어보며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사보도 작품상을 수상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공정한 진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청취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CBS 특집 <불안>은 라디오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사고와 범죄, 재난을 비롯해 사회 구조적 불안정으로부터 생겨나는 불안의 실상을 짚어내고, 어떻게 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도 함께 수상했다.

연예오락 라디오 프로그램 작품상에는 CBS <이명희, 박재홍의 싱싱싱>이 선정됐다. <이명희 박재홍의 싱싱싱>은



9월 3일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CBS 라디오는 작품상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방송대상은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1년간 방송에 공헌한 프로그램과 인물을 선정해 격려하는 방송인의 축제다.

잇고 있었던 '소리'를 통해 '추억'을 보여드린다는 문제의식으로 마련한 흥미로운 코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라디오 뉴스 부문에선 대전CBS의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 비리' 특종 및 연속 보도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 행정 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의제화했다

는 평가다.

제주 CBS의 <ON AIR! 지켜진 상상!>도 지역교양 라디오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PD연합회 PD대상 작품상도 받은 이 작품은 한 초등 교사가 만든 제주어 노래가 2022년, 음악교과서에 실려 제주어를 배우려는 대중이 많아진다는 '즐거운 상상'이 주 내용이다. 특집 방송에 나온 제주어 노

래는 음반으로 제작돼 제주도 내 초·중·고 187개교에 무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CBS는 수상을 통해 확인된 콘텐츠 경쟁력을 발판으로 CBS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웹 등 CBS의 모든 매체를 통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역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제24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오는 10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본선 개최



지난해 10월 29일 아일랜드리조트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3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CCM의 대중화와 찬양 문화를 이끌어 온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이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1990년 9월,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로 시작된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지난 24년 동안 한국 기독교 찬양 문화의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제시하고 많은 찬양 사역자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한국의 '크리스천 음악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동안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소리엘, 조수아, 위드, 에이멘, 강찬 등 한국을 대표하는 CCM가수들을 배출해 왔으며,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찬양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제24회 CBS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은 예선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본선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 교육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6기 모집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hristian Leaders Academy)가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충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크리스천 CEO를 위한 최고경영자과정이다.

그동안 CLA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몽준, 박병석, 정우택 의원, 안창호 헌법재판관,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등 교계 및 정·관·재계의 크리



스천 리더 등이 참여했으며,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청량리에 소재한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대표 최일도 목사)를 찾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크리스천 리더들의 신앙적 리더십 실현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CLA 6기는 10월 17일 개강예정이며, 16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2650-7921~2)

2013 CBS 캠페인 아프리카편 ♥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프리카편 동영상
SMART APP으로 만나보세요.

3 선교 후원 안내

선교 후원회 02-2650-7004

선교후원센터 02-2644-6651

선교후원 ARS 060-600-7004

CBS의 방송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홈페이지 LOVE.CBS.CO.KR

이 아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천성 뇌수종이라는 장애를 가진 아프리카 우간다의 여섯 살 나디기

뇌에 척수액이 차올라 머리는 몸집만큼 커졌고
심각한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습니다.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

나디기와 같은 아이들이 영양과 보건, 식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CBS는 2,500여명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1:1 후원을 체결했으며
지금도 위험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세상 곳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